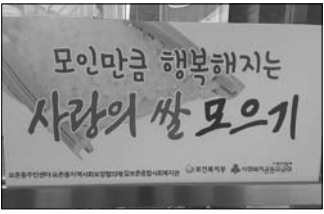


특별기획



요촌동 희망 나눔 한마당 행사

좁도리 쌀 모으기 운동 시작

김제시 요촌동주민센터(동장 송해숙)은 오는 11월 1일 요촌동 희망 나눔 한마당 행사를 위한 좁도리 쌀모으기 운동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요촌동과 요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해숙, 김만중) 주관으로 진행되는 '좁도리쌀' 모으기는 10월 28일까지며 모아진 쌀은 11월 1일 진행되는 희망 나눔 한마당 행사에 따뜻한 떡국과 쫄면인 인절미로 만들어 지역주민과 함께 나눔 예정이다.

김만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주민이 한마음으로 모은 쌀이 요촌동 한마당 행사에 뜻깊게 사용되어 기쁘다며 이 행사로 요촌동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해숙 요촌동장은 "이번 좁도리쌀 운동이 주민 스스로 채워 서로 나누는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작은 것이지만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요촌동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좁도리쌀 기부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은 언제든지 요촌동 주민센터(☎540-49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깨·친·맛·값

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 받아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2016년 지정된 깨·친·맛·값 음식점 신규 지정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이며,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된 일반음식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가격도 적당한 우수 업소(분식 취급업소 제외)이며,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2년이 경과된 업소만 신청 가능하다.

지정된 깨, 친, 맛, 값 음식점은 건물의 시설과 환경이 청결해야 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며, 음식의 맛, 종사자의 서비스, 위생관리 상태가 적절해야 한다.

모범음식점과 차별되며 추진되는 김제시 특화사업으로 현재 6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신규 업소를 추가 선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2016년 추가 신규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심의 운영위원들의 엄격한 현지 심사를 통하여 선발 할 예정이며, 체계적이고 꾸준한 홍보와 더불어 시설개선자금 등을 우선 융자 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다양한 물품이 지원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농촌사랑물품 김제시에 기탁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춘수)은 19일 농촌사랑 실천으로 관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전달해 달라고 유우고기 50박스(185만원 상당)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동진강낙농축협은 농업·농촌의 문화 및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된 농촌사랑기금으로 마련한 물품 전달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김춘수 조합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시민행복 늘리는 나눔복지에 앞장서는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정성이 담긴 사랑의 유우고기는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백산저수지 수변도로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필요성 검토

김제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시장 이진식)는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19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실과장 및 사업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국비 확보 사업 및 현안사업 등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제시는 9월말까지 국소별로 자체 보고회를 통해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참신한 신규사업을 개발하였고 금번 1차 보고회를 통해 백산저수지 수변도로개설(30억), 육아종합지원센터(20억), 농아 전수교육관건립(30억), 스포츠관광인전 콤플렉스건립(292억) 등 22개사업 총사업비 2,781억원 확보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이와 별도로 11월에 지역발전위원회 연계협력 및 새뜰마을 사업에 공모(2건 100억)할 계획으로 있다. 신규로 발굴한 사업은 논리를 보강하여 사전행정 절차와 국가예산 확보 활동

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본격 예산 시점이 시작되기 전인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2차·3차 발굴보고회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체류형 관광 및 지역특화 복지향상 분야 등에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이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복도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보건소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지난 18일 내장산 일대에서 '부당요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정읍시보건소, 내장산 단풍철 부당요금 근절 캠페인

상인들 · 공무원 40여명 참가

정읍시보건소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지난 18일 내장산 일대에서 '부당요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캠페인에는 내장산 주변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상인들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 관련 공무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부당요금과 고객행위 근절, 식중독 예방 및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친절서비스 등 환대 의지를 다짐하고 인근 내 상인들에게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우리지역 쌀 소비촉진 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캠페인 참가 상인들은 "다시 찾고 싶은 내장산이 됐으면 좋겠다"며 "내장산이 이번 자정결의 캠페인을 계기

로 부당행위가 확실히 근절되고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장산 인근 위생업소의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과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해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있는 내장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문가 초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직원들 이해도 향상 위해

부안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단 법 시행(9월 28일)과 관련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위반사례를 예방코자 전문가를 초청 교육을 가졌다.

이를 위해 군은 1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 및 읍면전 공무원과 공무원행인사(각 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태 전 전북도 감사관을 초

청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태 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교육을 주제로 열린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 특징, 주요 내용, 금품 등 수수의 주요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군은 이번 교육 등을 통해 적용범위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식사와 선물값, 경조사비 등을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단 법'이 본격 시행됐다며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부안군에서는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현장행정 통한 의정 · 봉사활동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복리후생과 아동들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재교구 증진을 위한 예산 증진요구에 대해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는 이날 회의의 마치고 오후에는 정우면에 있는 느티나무 요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느티나무 요양원은 사회복지 노인요양시설로 9명의 노약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노인들에게 인마를 해주었으며, 노인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고 생활품을 전달한 후 위로하고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했다. 정읍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복리후생과 아동들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재교구 증진을 위한 예산 증진요구에 대해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는 이날 회의의 마치고 오후에는 정우면에 있는 느티나무 요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느티나무 요양원은 사회복지 노인요양시설로 9명의 노약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노인들에게 인마를 해주었으며, 노인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고 생활품을 전달한 후 위로하고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 집중 단속

정읍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차량

그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펴온 정읍시가 오는 11월 15일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완공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계도해왔으나 공영 차고지 완공 이후 집중단속에 들어가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골짜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다.

시는 특히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와 골짜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 인구밀집지역(아파트·주택가)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차 20만원, 개별

화물차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 및 전세버스에는 2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성기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차고지의 밤샘주차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을 위해 지정 차고지와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물공영 차고지는 정읍시 하모동 70-101번지 일원(월천마을 주변) 2만9천421㎡ 부지에 조성됐다.

건립에는 총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됐고, 주차장 178면(화물차118면, 승용차60면)과 관리동 1동에 수면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휴게실, 회의실 등을 갖췄다.

시는 공영 차고지 완공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해소됨은 물론 소음과 매연피해, 주차 공간 부족 등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경, 갯벌 갯바위 안전사고 예방나서

부안해경(서장 조성철)은 갯벌과 갯바위에서 고립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지역을 지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점검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에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인근 갯벌에서 밀물에 고립된 김 모(42)씨 등 2명이 해양경찰 구조대에 구조되었다.

이처럼 부안과 고창군 관내 해안가는 넓은 갯벌과 간조시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만 조시에 출몰이 불가능한 고립지역이 다수 산재해 있어 방문객들이 현지 정보와 조석 차이에 익숙치 못해 많은 고립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해경은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일대와 군산대학교 수련원 앞 사자바위, 채석강 소리섬 개섬, 솔섬, 모항 갯벌체험장, 곰소항 인근 등을 갯벌과 갯바위 고립 위험지역에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주요 고립 위험지역

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고립 위험지역에 간이 구명정과 위험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갯벌이나 갯바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국립해양조사원(www.nori.go.kr)의 조석예보를 확인하고, 야간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 것과 비상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와 손전등 등을 꼭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인근 해안가 점검에 나선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조개잡이에 열중하다 보면 바다상황에 둔감해지고 최근에는 짙은 해무와 함께 방향감각을 잃고 순식간에 갯벌에 고립될 수 있다"면서 "사람의 이동 속도가 밀물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밀물 시작 2시간 전에는 반드시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서 이후 발생한 갯벌과 갯바위 고립사고는 9건이 발생해 25명이 구조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현대에너지 도지사상 표창

정읍첨단과학산업 입주기업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서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주)현대에너지(대표 장희근)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자연을 돌려준다'라는 주제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부안)에서 8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13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서 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 상은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에 크나큰 공을 세운 기업에게도 지사가 수여하는 상으로서 일반 기업인으로는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주)현대에너지 장희근 대표가 유일하게 수상한 것이다. (주)현대에너지는 전복을 대 표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기업으로서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사

업에 기여하며 해마다 태양광 발전소 10MW 설치를 목표로 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달성해 왔으며,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위치한 첨단과학 산업단지에 입주한 1호 기업으로써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현대에너지는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걸맞게 첨단 과학 분야인 인바터 및 수배전반 제작,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대표가 유일하게 수상한 것 무 대행 컨설팅은 물론이고 설치, 관리, AS까지 논스톱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